

그림책작가 홍성찬의 작품 활동과 작가정신 고찰

A Study on the Works and Artist Spirit of the Picture Book Writer Hong Seongchan

조 현 애(Hyeun-Ae Joe)*

<목 차>

- | | |
|-----------|-----------------------|
| I. 서론 | II. 홍성찬의 삶과 작품 활동 |
| 1. 연구목적 | III. 홍성찬 그림의 특징과 작가정신 |
| 2. 연구방법 | IV. 결론 |
| 3. 용어의 정의 | |

초 록

이 연구는 그림책작가 홍성찬의 작품 활동과 그림의 특징, 작가정신을 고찰함으로써 한국그림책역사에서 그림책작가 1세대로 자리매김한 홍성찬의 의미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1955년에 삽화가로 활동을 시작해서 2012년, 마지막 그림책을 낼 때까지 홍성찬이 걸어온 길은 한국그림책의 발전과정과 궤를 같이한다. 그는 삽화가라는 직업이 주목받지 못하던 시절부터 전집 시절을 거쳐 그림책작가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일관되게 출판일러스트에 전념하였다. 그 결과 철저한 고증(考證)을 통한 한국 고유의 이미지와 정서 재현이라는 독보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하였다. 그가 일생 동안 견지한 삽화정신과 장인정신은 전업 그림책작가라는 직업군 탄생의 밑거름이 되었고 홍성찬은 한국그림책역사에서 그림책작가 1세대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키워드: 홍성찬, 삽화가, 출판일러스트, 그림책작가 1세대, 고증, 한국 고유의 이미지와 정서, 삽화정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the meaning of Hong Seongchan who has become the first generation picture book writers in the history of Korean picture books by considering the works of the picture book author 'Hong Seongchan', the characteristics of pictures and the artist's spirit. The career that he took up from 1955 as an illustrator to 2012 when the final picture book was published is in line with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Korean picture books. He consistently devoted himself to publishing illustrations from the days when his job as an illustrator was not noticed to the days when he finished his life as a picture book writer through his full-length period. As a result, he built a unique world of works, such as the reproduction of Korean images and emotions through complete historical research. His strong illustration spirit and craftsmanship during his lifetime became the basis of the birth of a professional group called a full-time picture book writer, and Hong Seongchan became the first generation picture book writers in the history of Korean picture books.

Keywords: Hong seongchan, Illustrator, The first generation picture book writers, Historical research, Korean images and emotions, Illustration spirit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수료(lidiaa@naver.com)

•논문접수: 2019년 02월 21일 •최초심사: 2019년 02월 28일 •게재확정: 2019년 12월 19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4), 611-633, 2019. [http://dx.doi.org/10.16981/kliss.50.201912.611]

I. 서론

1. 연구목적

홍성찬(洪性鑽, 1929년 4월 5일 ~ 2017년 12월 4일)은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그림책작가가 아니다. 그의 그림책이 재미있거나 독자들이 선호하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홍성찬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기념하는 행사가 꾸준히 있어왔다. 영월 책박물관에서 열린 ‘홍성찬 출판일러스트레이션 사십년특별전’(2000)과 홍성찬갤러리에서 열린 전시 ‘우리그림책 길찾기: 홍성찬골목에서’(2010),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기획전 ‘홍성찬 아카이브원화전’(2014), 순천 시립그림책도서관에서 열린 ‘홍성찬을 그리다: 1세대 그림책작가 홍성찬유작전’(2019)이 대표적 예다. 2017년 5월 22일에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홍성찬 개인문고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행사가 책과 작품을 수집하고 전시하는 데 그쳤다. 한국그림책역사에서 홍성찬을 왜 주목해야하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그림책작가 홍성찬의 작품 활동과 그림의 특징, 작가정신을 고찰함으로써 한국그림책역사에서 그림책작가 1세대로 자리매김한 홍성찬의 의미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30년 동안 한국그림책출판은 급성장을 하였다. 그림책의 독자층이 어린이는 물론 성인에 이르기까지 두터워지고 그림책 독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도서관의 그림책 수서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그림책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홍성찬을 조명함으로써 사서의 그림책작가에 대한 이해와 수서활동, 자료장악력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그림책작가 홍성찬의 작품 활동과 그림의 특징, 작가정신을 고찰하기 위해 그의 단행본 그림책, 전집 그림책, 동화책 삽화, 잡지와 신문 삽화, 논문, 잡지와 신문 기사를 읽고 분석하면서 문헌연구를 주로 하였다. 그리고 홍성찬갤러리 재오픈 기념프로젝트 ‘우리그림책 길찾기¹⁾’때 직접 인터뷰한 홍성찬과 관련 인물들(그림책작가, 출판관계자 등)의 인터뷰 내용을 출판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인용·참고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문무경의 ‘홍성찬 일러스트레이션의 특징과 의의’라는 연구가 유일했는데 이것은 홍성찬의 그림에 초점을 맞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홍성찬의 작품 활동과 그림의 특징, 작가정신 전반을 살펴보고 한국그림책역사에서 그림책작가 1세대로

1) 보림출판사에서 ‘홍성찬갤러리’를 재오픈하면서 기념으로 진행한 프로젝트다. ‘출판일러스트레이터로서 57년 외길을 걸어온 홍성찬의 삶과 작품을 통해 우리그림책의 위상을 재정립하자’는 취지 아래 그림책작가, 편집인, 디자이너, 그림책연구자 등이 모여서 원화전, 그림책 출판, 다큐멘터리 제작을 진행하였다.

자리매김한 홍성찬의 의미를 조명함으로써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3. 용어의 정의

홍성찬은 1955년에 신문과 잡지에 삽화를 그리는 삽화가로 활동을 시작해서 평생 책에 그림을 그리다가 2017년, 그림책작가로 생을 마감한 작가다. 그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의 이름 앞에는 시대에 따라 삽화가, 출판일러스트레이터, 그림책작가라는 직함이 차례로 붙었다. 삽화가, 출판일러스트레이터, 그림책작가는 인쇄매체에 그림을 그린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정의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각각의 정의를 정리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가. 삽화가

삽화가란 삽화(插畵)를 그리는 사람을 말한다. 삽화는 ‘내용의 이해를 돕거나 보충설명을 위해 책이나 신문, 잡지 등에 끼워 넣는 그림’(다음사전)을 말한다. 보충설명을 위해 끼워 넣는 그림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인식은 삽화가를 회화작업을 하는 사람과 차별하고 박대하는 풍토를 낳기도 하였다. 한편 삽화가가 ‘동화나 소설 또는 신문과 잡지의 표지나 본문의 삽화(Illustration)를 그리는 화가’(위키백과)라는 정의를 보면 삽화가와 일러스트레이터가 같은 뜻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출판계에 일러스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삽화가라는 명칭보다 출판일러스트레이터라는 명칭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나. 출판일러스트레이터

일러스트레이션²⁾은 ‘제3자에게 무엇인가 의미를 전달하거나 내용을 암시하는 데 사용되는 그림’(네이버사전)을 뜻한다. 원시시대의 동굴벽화가 그들의 생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일러스트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일러스트에서는 표현형식이나 기법보다 의미전달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러스트레이터란 일러스트를 그리거나 만드는 사람을 뜻하는데 분야에 따라 역할이 다르다. 일러스트는 목적에 따라 크게 출판일러스트와 광고일러스트로 나뉘는데 출판일러스트레이터는 신문, 잡지, 책 등 출판매체에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다. 그림책작가

그림책은 출판일러스트의 한 분야로 글과 그림이 유기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야기를 전하는 책을 뜻한다. 그림책에서 그림은 글과 함께 이야기를 전달하는 중심 역할을 하므로 삽화라

2) 디자인에서는 일러스트레이션을 일러스트라고 약칭한다(네이버 백과사전). 따라서 이 논문은 일러스트레이션을 일러스트라고 칭하였다.

부르지 않고 구별을 한다. 지금까지 그림책은 어린이들이 보는 책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들어 누구나 보는 시각예술로 인식되면서 독자층이 확대되고 있다. 그림책작가는 그림책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일컫는데 최소한 자기 이름의 창작 그림책이 한 권 이상은 되어야 그림책작가로 인정을 받는다. 이때 다른 사람이 쓴 글에 그림을 그려 넣은 창작 그림책도 포함이 된다. 자신의 창작 그림책이 출판되지 않은 경우는 출판일러스트레이터, 또는 일러스트레이터로 불린다.

정리를 하면, 삽화가와 출판일러스트레이터는 같은 의미다. 신문, 잡지, 책 등 출판매체에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는 사람을 1980년대 이전까지 주로 삽화가라 불렀는데, 1980년대 출판계에 일러스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삽화가라는 명칭이 출판일러스트레이터라는 명칭으로 대체된다. 그림책작가는 출판일러스트레이터 가운데 하나로 그림책이라는 매체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뜻한다. 자기 이름의 창작 그림책이 한 권 이상이 출간되어야 그림책작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출판일러스트레이터, 또는 일러스트레이터로 불린다.

II. 홍성찬의 삶과 작품 활동

1955년에 삽화가로 활동을 시작해서 2012년까지 출판매체에 그림을 그렸던 홍성찬의 삶은 한국그림책의 발전과정과 궤를 같이 한다. 본 연구자는 홍성찬의 삶과 작품 활동을 그가 주로 의뢰를 받아 그림을 그린 매체유형을 기준으로 신문, 잡지 시절(1950년대~1960년대), 전집 시절(1970년대~1980년대), 단행본 시절(1990년대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홍성찬의 삶과 작품을 살펴보기 전에 그가 활동한 시절의 한국출판일러스트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홍성찬이 삽화가로 활동을 시작한 1950년대부터 일명 전집시대인 1980년대까지는 한국그림책출판이 활성화되기 전이므로 그림책 출판을 포괄하는 출판일러스트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신문, 잡지 시절(1950년대~1960년대)

가. 한국출판일러스트의 동향

1950년대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사회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출판매체의 종류와 질은 차치하고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였다. 책 출판이 활발하지 못했고 읽을거리의 대부분을 신문이나 잡지가 차지하였다.

1960년대는 한국사회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성장에 매진함에 따라 나름대로 기틀을 잡아간 시기로 출판계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1963년, 도서관법이 공포되는 등 정부 주

도 하에 독서활성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출판매체의 종류와 양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일러스트 분야의 경우, 초기에는 순수 미술가들 가운데 일러스트 작업에 참여하는 작가들이 간혹 있어서 미술계와 연계가 되어 있었으나 차츰 일러스트 분야가 미술계로부터 소외되었다. 출판일러스트에 참여하기 시작한 새로운 작가들이 경박한 의미로서의 ‘만화가’, ‘삽화가’라 불리면서 박대를 받았다.

나. 삶과 작품 활동

홍성찬은 큰 아이가 태어난 1955년(27살)에 우연히 친구 소개로 희망사에서 삽화 그리는 일을 시작하였다. 원고료가 박해서 가난을 면하지 못했지만 그림 그리는 일에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월간 잡지 <희망>, <야담> 등에 20년 넘게 삽화를 그렸다. 1962년부터 1968년까지는 국민서관 삽화 팀에 소속이 되어 그림을 그렸다. 국군장병을 위해 1964년 11월에 창간된 <전우신문>에도 그림을 그렸다. 1964년에는 <새소년> 8월호에 그림을 기고하기 시작하였다. 삽화가가 박대 받던 시절이라 원고료가 박하거나 못 받는 일이 허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출판사를 옮기지 않고 한곳에서 꾸준히 작업을 하였다. 홍성찬은 그 시절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희망사 경우 작은 컷 하나(나한테 그런 것밖에 차례가 안 왔으니까)에 그 당시 돈으로 40원 정도 쳐 줬어요. 지금으로 치면 쌀 두세 되 값이나 될까? 한 달을 꼬박 그려 봐야 몇 장을 그리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른 출판사 일도 알아볼까 하다가 그만두었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작업을 날림으로 하게 될까봐 돈을 주든 말든 희망사 일만 꾸준히 했어요. 다행스럽게 그 출판사에서 다른 잡지들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야담>이 1956년에 창간되고 <주간희망>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중 <야담> 일을 많이 했죠. 그래도 가난을 면하진 못했어요. 아주 불행했어요. 그래서 벗어버리고 싶었는데 애착이 가서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었던 거니까. 순수회화는 못 했지만 그래도 그림 쪽이니까 언젠가는 하겠지 하면서 연습 삼아 시작한 건데 직업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그런데 <야담>지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그게 내 생리에 맞는 것 같더라고. 현대적이거나 환상적인 일러스트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때 한 것이 <삼남일행>(최종선, 1957), <기연의 비장>(신장석, 1959)같은 거였는데 대개가 야사이거나 그걸 바탕으로 한 창작물이었어요.”(홍성찬 2011).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첫째, 그가 출판사를 옮기지 않고 희망사라는 한 출판사에서 계속 일을 한 점이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기저기 다른 일을 찾아볼 수도 있었지만 홍성찬은 작업을 날림으로 하게 될까봐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작업에 임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삽화가 천대 받던 시절, 박한 원고료를 받으면서도 홍성찬이 삽화 그리기를 포기하지

않은 점이다. 외부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삽화 그리기를 계속 한 그의 태도에서 그림 그리기에 대한 애정을 읽을 수 있다.

셋째, 홍성찬이 잡지 <야담>에 20년 넘게 그림을 그리면서 자시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한 점이다. 그는 주로 <야담>지에 실리는 야사나 야사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에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이 자신의 생리에 맞음을 알아차린다. 현대적이거나 환상적인 일러스트를 잘하는 이들을 동경하기보다 자신이 잘하는 것을 알고 집중한다. 그 결과 한국 고유의 이미지와 정서를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독보적인 화풍을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2. 전집 시절(1970년대~1980년대)

가. 한국출판일러스트의 동향

1970년대에 접어들어 사회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출판 분야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영역이 세분화되었다. 1960년대의 전통적 표지 구성과 흑백 위주의 일러스트가 그대로 답습되는 가운데 컬러 인쇄를 본문 중에 일부 할애하거나 아예 올컬러로 전체를 인쇄한 책들이 등장하였다. 몇몇 대가들이 전집을 맡아 ‘대작’을 작업하기도 한, 일명 전집시대, 전집의 전성기가 도래하였다. 하지만 저작권법이 발효되기 이전이어서 불법복제물이 난무하였고 외국 고전의 중복 출판과 같은 관행이 198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다.

한편 1980년대는 경제여건이 더욱 좋아지면서 출판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출판매체가 양적으로 팽창을 하였다. 인쇄기술이 발전하고 일러스트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일러스트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글의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그림이라는 개념의 ‘삽화’가 의미를 전달하는 그림이라는 개념의 ‘일러스트’로 대체되고 일러스트가 미술의 독자적 영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흐름에 힘입어 디자인 전공자들이 어린이책에 일러스트 작업을 시작하는데 대부분의 그림이 유형화된 묘사로 채워졌다. 유형화된 묘사란 비오는 장면에 빗줄기와 장화를 그려 넣는 등 화면구성이 천편일률적이고 인물이 표준화된 모습으로 그려진 타성에 젖은 그림을 말한다.

한편 198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 유형화된 그림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던 몇몇 작가들이 자신의 조형세계를 구체화하면서 한국그림책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선구자 역할을 한 작가가 류재수이다. 1988년에 나온 그의 첫 단행본 그림책 『백두산 이야기』가 그림책이라고 하면 예쁘고 아기자기하며 화려한 색상으로 채색된 책을 떠올리던 당시의 선입견을 깨고 한국그림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나. 삶과 작품 활동

1970년대에 홍성찬은 주로 신문과 대중 잡지, 소설책에 삽화를 그리면서 활동을 이어갔다.

부산 <민주신보>에 연재된 곽갑송의 《꽃은 지고 피고》와 <한국일보>에 연재된 한수산의 《해빙기의 아침》에 삽화를 그렸다. 대중들에게 크게 인기를 얻은 『왕비열전』(고려출판사)에도 삽화를 그렸다. 그런데 주로 신문과 대중잡지, 소설책에 삽화를 그리던 그에게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림을 그려달라는 제안이 들어온다. 이후 그는 어린이 잡지 <꿈동산>(어린이잡지 ‘어깨동무’ 자매지)에도 컬러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홍성찬은 어린이책 일러스트레이터³⁾의 길로 들어선다.

1980년대에 접어들어 출판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어린이책 출판량이 팽창함에 따라 어린이책 일러스트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었다. 그로 인해 홍성찬에게도 어린이책에 그림을 그려달라는 의뢰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홍성찬은 계몽사를 중심으로 어린이책에 그림을 그리면서 어린이책 일러스트에 집중을 하였다. 이 시기는 일명 전집시대였으므로 홍성찬은 주로 아동문학전집에 그림을 그렸다. 그때의 상황을 홍성찬은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1980년 후반부터 계몽사를 비롯한 여러 출판사들을 중심으로 서서히 작품 활동 반경을 넓혀 갔어요. 계몽사가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서 시작한 건 다른 사람들 거의 다 거쳐 간 뒤에 굉장히 늦게 연이 닿아서 그쪽에서 해 달라 그러더라고. 늦게 시작했지만 다른 사람보다 많은 걸 한 거 같아요.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안 하던 걸 좀 했어요. 자꾸 새 걸 만드니까 ‘계몽사’가 일거리를 많이 줬어요. 세어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내가 그림을 그린 책만 100여 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책 그림은 198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 같고. 보통 한 권 맡아 그리는 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서너 달 씩 걸려요.”(홍성찬 2011).

한편 홍성찬에게 또 한 번의 중요한 기회가 찾아온다. 1988년 5월 4일부터 9일까지 한국에서 처음으로 국제아동도서협의회(IBBY)가 주최한 ‘국제그림동화원화전시회’가 열린 것이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13개국 63명의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작품 180여 점이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홍성찬도 그림을 출품하였다. 한국아동도서협의회(KBBY)의 기틀이 마련된 이 전시회는 홍성찬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일러스트레이터들이 그림책작가로 분류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홍성찬은 어린이동화와 그림책 일러스트에 더욱 집중을 한다. 이후 홍성찬은 1989년에 그림책 『개미와 배짱이』(동화출판공사)에 그림을 그리면서 본격적으로 그림책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3) 1980년대에 접어들어 일러스트에 대한 인식이 바뀔에 따라 일반적으로 삽화가라는 호칭보다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호칭을 더 많이 사용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1980년 이후 상황을 언급할 때는 삽화, 삽화가라는 용어 대신 일러스트,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그림 1〉 홍성찬 삽화
(소년소녀 세계위인전기전집, 1974)



〈그림 2〉 홍성찬 삽화
(컬러판 한국전래동화, 1989, 1990 (중복출판))

3. 단행본 시절(1990년대 이후)

가. 한국출판일러스트의 동향

1990년대 한국출판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로 어린이책 출판의 세분화와 전문화, 이를 바탕으로 한 단행본 그림책시대의 개막을 들 수 있다. 어린이책 전문기획집단인 보리, 재미마주, 초방 등과 어린이책 전문출판사인 길벗어린이, 네버랜드, 비룡소, 보림 등이 생겨남에 따라 어린이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질이 향상되었다. 유명한 외국 그림책들이 번역, 출판되면서 여기에 자극을 받은 한국 출판사들이 재능 있는 그림책작가를 발굴하였다. 그로 인해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그림책이 단행본으로 출간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기획집단이던 '보리'가 1991년에 독자적으로 선보인 <보리 아기그림책 시리즈>, 보림출판사가 1994년에 기획, 출판한 <한국 최초로 작가가 쓰고 그린 그림책 시리즈 25권>,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전문서점 '초방'이 기획하고 통나무출판사에서 1994년에 출판한 『까막나라에서 온 삼사리』, 기획집단이던 '재미마주'와 삼성어린이박물관이 공동 기획하고 길벗어린이 출판사에서 1995년에 출판한 <내가 처음 가본 박물관 시리즈> 첫 권 『봄날 호랑나비를 보았니?』 등으로 한국단행본 그림책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이렇게 1995년을 전후로 그림책 출판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단행본 그림책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였다. 전업 그림책작가가 등장하고 이들이 순수창작자로 조명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학부모들의 책 구매 행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전집 구매를 당연시 여기던 이전과 달리 단행본을 구입해서 아이와 함께 읽고 즐기는 풍토가 확산되었다.

나. 삶과 작품 활동

1990년대에 접어들어 어린이책 출판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기존에 활동하던 출판인과 작가들이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늘어났다. 기성 작가들의 그림이 진부한 그림으로 치부되면서

그들의 자리를 후세대 작가들이 대신하였다. 하지만 홍성찬은 변화된 출판환경을 받아들이고 어린이책 일러스트에 전념하던 중 단행본 그림책을 출간하면서 그림책작가로 거듭난다.

“요즘 옛날 사람들은 다 손 떴고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무슨 주간이라든지 끌고 다니는 사람들 옛날로 보면 많이 줄어들었어요. 상당한 이론을 가지고 자기 맡은 분야에 충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인데 그 사람들을 내가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사고가 다를 수 있고 시각도 다르고. 하지만 내가 생각 못했던 거 알려주고, 그런 것이 많죠. 그 사람들 안목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그래서 기획자랑 같이 일하면 발전하는 느낌이 있어요.”(홍성찬 2011).

다음은 홍성찬이 그림책작가로 활동한 1990년대와 마지막 그림책을 출간한 2012년까지 그가 그림을 그린 단행본 그림책 목록과 수상이력이다.

〈표 1〉 홍성찬 그림의 단행본 그림책(저자 순서는 판권지에 따름)

연번	저자	출판 연도	제목	출판사	비고
1	김영희 글, 홍성찬 그림	1991	『정배와 아가』	서울: 한국프뢰벨 주식회사	어린이문화진흥회, 제1회 어린이문화대상, 미술 부문 대상
2	이형구 글, 홍성찬 그림	1995	『단군 신화』	서울: 보림	
3	강영환 글, 홍성찬 그림	1996	『집짓기』	서울: 보림	대한출판문화협회, 제17회 한국어린이도서상, 일러스트 부문 문체부장관상
4	이석호 글, 홍성찬 그림	1996	『난중일기』	서울: 예림당	
5	조대인 글, 홍성찬 그림	1997	『땅속나라 도둑괴물』	서울: 보림	
6	이광웅 글, 홍성찬 그림	1998	『허준과 동의보감』	서울: 예림당	
7	중국조선족설화, 홍성찬 그림	1999	『재미네글』	서울: 재미마주	
8	이태준 글, 홍성찬 그림	2000	『돌다리』	서울: 다림	
9	이효석 글, 홍성찬 그림	2001	『메밀꽃 필 무렵』	서울: 소담출판사	
10	김정란 글, 홍성찬 그림	2001	『아리 공주와 꼬꼬 왕자』	서울: 논장	
11	유소영, 박혜숙 글, 홍성찬 그림	2001	『귀신 이야기 옛들은 소금 장수』	서울: 논장	
12	이광웅 글, 홍성찬 그림	2001	『대조영과 발해』	서울: 예림당	
13	중국조선족설화, 홍성찬 그림	2003	『재미네글(판소리로 듣는 옛이야기)』	서울: 재미마주	
14	김시습, 박철 글, 홍성찬 그림	2004	『선비 한생의 용궁답사기』	서울: 재미마주	
15	정종목 글, 홍성찬 그림	2006	『광개토대왕』	서울: 어린이중앙	
16	홍성찬 그림, 원동은 글	2006	『얼씨구절씨구 풍년이 왔네』	서울: 재미마주	
17	홍성찬 그림, 원동은 글	2006	『으랏차차 신나는 놀이마당』	서울: 재미마주	

18	홍성찬 그림, 원동은 글	2006	『괴나리봇짐 지고 세상구경 떠나보세』	서울: 재미마주	
19	홍성찬 그림, 원동은 글	2006	『오줌싸개가 정승판서가 되었다네』	서울: 재미마주	
20	홍성찬 그림, 원동은 글	2007	『매일매일이 명절날만 같아라』	서울: 재미마주	
21	진은진 글, 홍성찬 그림	2007	『백두산 시슴과 인삼』	서울: 썬크하우스	
22	백석 글, 홍성찬 그림	2007	『여우난골죽』	서울: 창비	
23	조현철 글, 홍성찬 그림	2009	『고구려 건국신화』	서울: 한겨레출판	
24	홍성찬 글, 그림	2009	『아빠는 어디에』	서울: 재미마주	
25	윤재인 글, 홍성찬 그림	2010	『할아버지의 시계』	서울: 느림보	
26	조재훈 글, 홍성찬 그림	2012	『지팡이 하나로』	서울: 재미마주	
27	홍성찬 글, 그림	2012	『토끼의 재판』	서울: 보림	

그림책 출판 연도를 보면 홍성찬이 1991년부터 2012년까지 꾸준히 단행본 그림책을 출간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홍성찬의 마지막 작품, 『토끼의 재판』이 그가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그림책이라는 점이다. 홍성찬은 57년 작품 활동 기간 주로 다른 사람이 쓴 글에 그림을 그려왔다. 그가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그림책은 2009년에 선보인 『아빠는 어디에』와 2012년에 선보인 『토끼의 재판』이 전부다. 그런데 『아빠는 어디에』는 1995년에 한국몬테소리출판사에서 출간한 전집 <피카소동화나라> 가운데 한 권이었던 『못생긴 당나귀』를 2009년에 단행본으로 다시 출판한 그림책이다. 처음부터 단행본으로 기획을 해서 출판한 『토끼의 재판』과는 차이가 있다. 『토끼의 재판』은 홍성찬이 그림책으로 출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래 동안 간직해온 이야기이다.

“아버지에게 어릴 때 들은 동화가 있었는데 토끼의 재판도 그 중 하나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한번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 동안 내가 미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저것 해볼 걸...”(홍성찬 2011).

『토끼의 재판』은 홍성찬의 뜻을 이해한 출판사를 만나 출간이 된다. 『토끼의 재판』을 출판하면서 홍성찬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 출판사 편집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선생님이 너무 하고 싶었던 주제였는지 혼자서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책을 출판하면서 고민도 많이 했어요. 선생님이 글을 길게 써오셨는데 선생님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았어요. 그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죄송하고 후회되는 마음이 있어요.”(박은덕 2019).

홍성찬은 『토끼의 재판』을 마지막으로 붓을 놓는다. 시력이 나빠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토끼의 재판』은 80이 넘는 작가가 점점 보이지 않게 된 눈으로 평생 붓을 놓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림 3> 『도끼의 재판』 책표지(2012)

Ⅲ. 홍성찬 그림의 특징과 작가정신

1. 홍성찬 그림의 특징

홍성찬 그림의 특징을 꼽으라면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철저한 고증(考證)을 통한 정확하고 사실적인 묘사이고, 두 번째는 고증을 바탕으로 한 작가의 해석과 상상력이고, 세 번째는 한국 고유의 이미지와 정서의 생생한 재현이다.

가. 철저한 고증(考證)을 통한 정확하고 사실적인 묘사

홍성찬의 그림에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고증(考證)’이다. 그가 그림을 그릴 때 고증(考證)과 사실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고증(考證)의 사전적 의미는 ‘예전에 있던 사물들의 시대, 가치, 내용 따위를 옛 문헌이나 물건에 기초하여 증거를 세워 이론적으로 밝히는 것’(네이버사전)이다. 그가 고증과 사실성을 강조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아이들이 읽고 보는 책은 또 하나의 교과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역사물에서는 잘못된 정보 하나가 역사 자체를 왜곡할 수도 있고 어린이들에게 잘못된 사고를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작품을 하든지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지라고 말하고 싶어요.”(홍성찬 2011).

그래서 홍성찬은 그림을 그릴 때 정확한 고증을 위해 여러 자료를 참고하고 도움 받을 만한 곳을 두루 찾아다녔다. 홍성찬의 이와 같은 작업 방식은 그가 1955년 월간지 <희망>에 처음 삽화를 그릴 때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희망사로부터 원숭이해 특집기획에 게재할 원숭이를 그려달라는 의뢰를 받은 홍성찬은 창경원(당시 동물원)으로 달려가서 급하게 스케치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작품을 남겼다. 월간지 <야담>에 그림을 그릴 때도 궁중역사의 대가 김화진선생과 역사학자 이상옥선생을 찾아가 조언을 받고, 출판사, 민속학자, 정신문화연구원 등을 찾아다녔다.

『단군신화』(보림 1995)를 그릴 때는 등글 넘적하고 광대뼈가 튀어나온 전형적인 한국인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해부학 자료까지 꼼꼼히 챙겼다.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집의 변천사를 담아낸 『집짓기』도 자료수집과 고증에만 3년이 걸렸다.



<그림 4> 『단군신화』 책표지(1995)



<그림 5> 『단군신화』 본문(1995)

그의 말년 작품 『할아버지의 시계』(느림보 2010)는 기존의 붓그림과 달리 단색 볼펜 드로잉만으로 공간감과 명암의 깊이를 표현한 그림책인데, 그림기법은 다르지만 작가 특유의 섬세하고 정확한 묘사는 변함이 없다. 집 구조와 세간, 세간에 새겨진 문양, 인물, 배경 등 어느 것 하나 대충 그린 것이 없다. 벽지와 가구, 장신구, 옷 주름 하나까지 고증을 통해 사실적으로 재현하였다.



<그림 6> 『할아버지의 시계』 책표지(2010)



<그림 7, 8> 『할아버지의 시계』 본문(2010)



한편 홍성찬은 많은 자료와 자문을 참고하지만 그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기억을 떠올려 생생한 감흥으로 그림을 그렸다. 홍성찬은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아서 어른들이 모이는 곳에 놀러가기를 좋아했고 그곳에서 짚신 삼는 것, 돛자리 짜는 것, 가마니 짜는 것을 보며 재미있어 하였다. 기억력이 좋아서 본 것은 대부분 기억을 했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본 것을 자주 그렸다.

“피난 가서 거기서 집 짓는 걸 봤어요. 동네에 있던 집을 헐어버리고 거기에 짓는데 기초 다지는 것부터 엮어서 초가지붕 덮는 데까지 내가 봤거든요. 내 일처럼 보고, 아, 저렇게 하는구나, 또 보고. <집짓기> 작업할 때 내 기억에 있는 걸 많이 썼죠.”(홍성찬 2011).



<그림 9> 『집짓기』 책표지(1996)



<그림 10> 『집짓기』 본문(1996)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제정한 한국어린이도서상을 1996년에 수상한 『집짓기』(보림, 1996)는 고증을 바탕으로 하되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다.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그리는 것과 실제로 관찰하고 그리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손동작을 그릴 때 거울을 보면서 그린다는 그의 작업태도에서 작품에 대한 철저함과 작가로서의 사명감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홍성찬이 철저한 고증을 통해 정확하고 사실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타오난 호기심과 기억력, 세밀한 관찰력과 경험, 꼼꼼하고 철저한 성격, 꾸준히 다져온 데생 실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나. 고증(考證)을 바탕으로 한 작가의 해석과 상상력

홍성찬의 그림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고증을 통해 대상을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고증에 근거를 두되 끊임없이 연구하고 상상을 해서 대상의 겉모습은 물론 그 속에 담긴 느낌이나 정서, 분위기, 주변 정황까지도 진짜처럼 묘사하기 때문이다. 겉모습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부묘사를 할 수 있지만 정서와 분위기는 작가의 상상력이 뒷받침되어야 그림으로 형상화할 수 있다. 홍성찬의 그림이 사실적 묘사가 뛰어나다 보니 상상력

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의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인물의 표정이나 동작, 정서와 주변 정황 등에서 작가의 상상력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재미네골』(재미마주, 2003)에서 홍성찬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용왕을 용의 모습으로, 사신을 물고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 물에 오른 물고기 사신이 물이 부족해서 힘들어하며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이를 두고 류재수는 “홍성찬의 그림이야말로 외적 고증(考證)과 내적 고증(考證)이 완벽한 그림”(류재수 2011)이라고 평한다. 이때 외적 고증(考證)이란 고증(考證)을 통해 대상의 외형을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것을 말한다. 내적 고증(考證)은 대상이 담고 있는 느낌이나 정서, 분위기, 주변 정황까지 진짜처럼 묘사하는 것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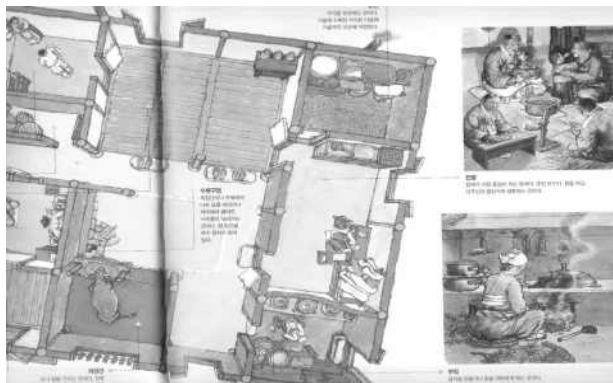


<그림 11> 『재미네골』 본문(1999)



<그림 12> 『재미네골』 본문(1999)

한편 『집짓기』(보림, 1996)는 우리나라 전통 가옥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지식·정보그림 책인데 홍성찬은 자신의 상상을 더해서 집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표현함으로써 그림책에 이야기와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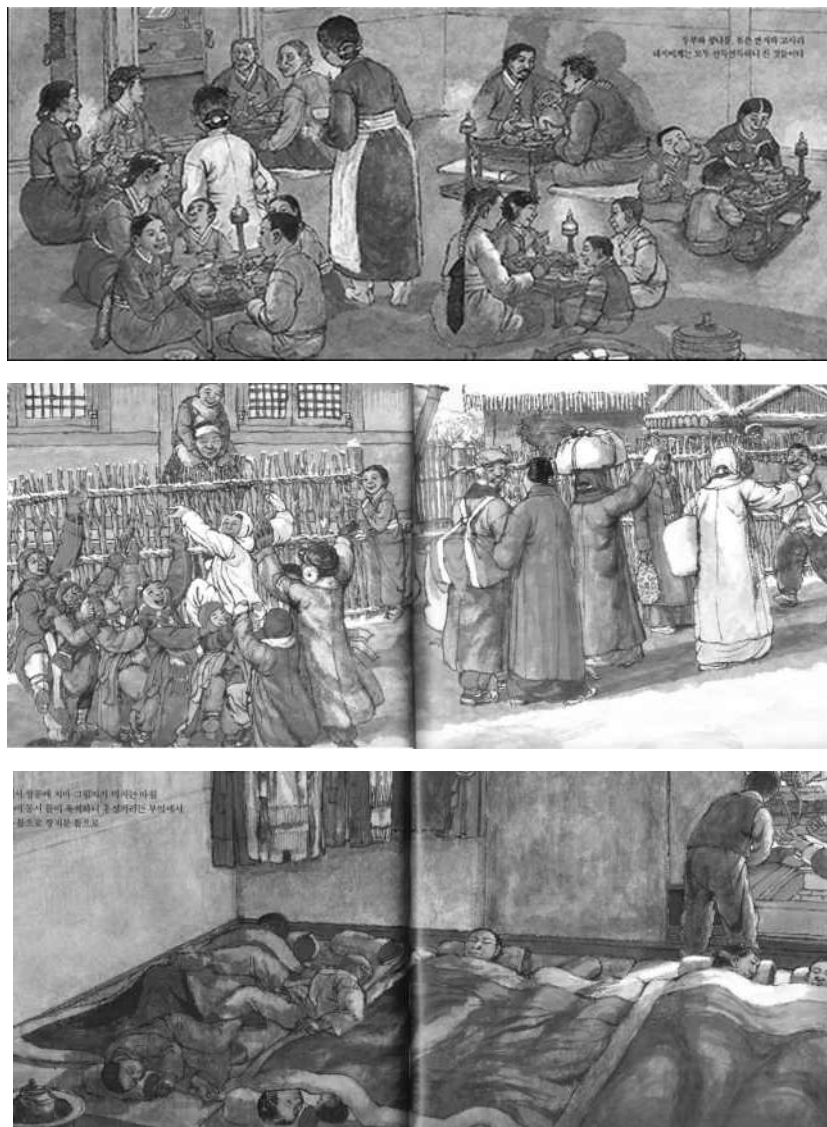
<그림 13> 『집짓기』 본문(1996)



<그림 14> 『집짓기』 본문(1996)

다. 한국 고유의 이미지와 정서의 생생한 재현

홍성찬이 철저한 고증(考證)을 통해 정확하고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다보니 주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거나 역사를 기록한 책에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홍성찬 스스로도 현대적이거나 환상적인 일러스트보다 옛것을 재현하는 그림을 더 잘 그릴 수 있음을 일찍이 알아차리고 집중하였다. 그 결과 오랫동안 다져온 데생 실력과 숙련된 필치로 한국 고유의 이미지와 정서를 생생하게 재현하는 독보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하였다. 그런데 홍성찬의 그림이 독보적인 이유는 그가 단순히 이야기의 한 장면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시대 배경과 풍경, 사물과



<그림 15, 16, 17> 『여우난골족』 본문(2007)

인물들을 마치 눈앞에서 보는 듯 생생하게 재현하기 때문이다. 홍성찬은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자신이 살았던 시절의 느낌을 그대로 재현하여 현재의 독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정서와 분위기를 그림으로 형상화하였다.

다음은 백석(白石)의 시(詩)에 홍성찬이 그림을 그린 『여우난골죽』(창비 2007)이다. ‘두부와 콩나물, 볶은 짬지와 고사리 돼지비계는 모두 선득선득하니 찬 것들이다’라는 <그림 15>의 시구절과 ‘고모의 딸 흥녀 아들 흥동이 작은 흥동이’라는 <그림 16>의 시구절, ‘그래서 창문에 처마 그림자가 비치는 아침 시누이 동서들이 옥적하니 흥성거리는 부엌에서 셋문 틈으로 장지문 틈으로’라는 <그림 17>의 시구절에 홍성찬의 그림이 더해져서 이야기가 더욱 풍성해졌다. 홍성찬의 그림을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분위기와 공동체 정서를 느낄 수 있다.

한편 홍성찬의 그림은 고증(考證)을 통한 사실적인 묘사가 뛰어나고 한국 고유의 이미지와 정서를 생생하게 재현하기 때문에 사료(史料), 또는 교육용 자료로서의 가치도 높이 인정을 받는다. 이와 같은 홍성찬 그림의 특성을 눈여겨 본 재미마주출판사가 기획, 출판한 그림책이 <홍성찬할아버지와 함께 떠나는 민속·풍물화 기행(전5권)>(재미마주 2006)이다. 출판사는 ‘우리 겨레의 얼과 혼이 담긴 전통문화와 생활양식이 근대화의 물결 속에 점차 사라지고,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이유로 유형·무형의 민족유산과 미풍양속이 서서히 잊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민족문화유산 복원을 위해’ 책을 출간했다고 한다. 다음은 <홍성찬할아버지와 함께 떠나는 민속·풍물화 기행> 가운데 제1권 『얼씨구절씨구 풍년이 왔네』(재미마주 2006)와 제2권 『으랏차차, 신나는 놀이마당』(2006), 제3권 『오줌싸개가 정승판서가 되었다네』(재미마주 2006), 제4권 『괴나리봇짐 지고 세상구경 떠나보세』(2006)의 장면들이다. 사료(史料), 또는 교육용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은 홍성찬 그림의 예다.



<그림 18> 누에치기, 『얼씨구절씨구 풍년이 왔네』(2006)



<그림 19> 뚝다리밟기, 『으랏차차, 신나는 놀이마당』(2006)



〈그림 20〉 과거시험, 『오줌싸개가 정승판서가 되었다네』(2006)



〈그림 21〉 제주도 전통 배인 테우와 덕판 배, 『괴나리뽕집 지고 세상구경 떠나보세』(2006)

2. 작가정신

가. 삽화정신

1980년대 이전까지 삽화가의 위상은 안정적이지도, 높지도 않았다. 출판환경은 열악하였고 그들의 그림은 독자의 눈을 끌기 위한 장식이나 보조 수단 정도로 인식되었다. 홍성찬이 잡지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1950년대는 더욱 열악하였다. 그는 자신이 데뷔하던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일러스트 해 가지고는 한 마디로 밥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었지. 그리고 그때 전쟁이 끝난 지도 얼마 안 된 어려운 시기여서 출판 상황도 열악했어요. 인쇄기술 또한 지금과 비교하면 너무 형편없어서 세밀해야 하는 부분에서도 선이 굵고 거칠게 나왔지. 거의가 흑백이었고 조잡한 인쇄와 종이 질, 철판에 지형을 통해 연관을 떼서 인쇄를 하던 시절이어서 정밀한 그림이 될 수가 없었지. 그리고 일반인들은 일러스트가 뭔지도 몰랐고 그런 말도 없었지. 그냥 삽화라고들 했지.”(홍성찬 2011).

사람들이 삽화도 그림이냐고 폄하하던 시절이었지만 홍성찬은 삽화가로서의 자긍심을 잃지 않았다. 그는 삽화를 그리는 자신이 단 한 번도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가 지닌 삽화가로서의 자긍심은 삽화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의 근간이 되었다. 홍성찬이 삽화가로 그림 그리는 일을 시작해서 평생 출판일러스트레이터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올 수 있었던 이유다.

“그림 스타일을 바꿔야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리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나라도 그리지 않으면 옛날의 우리 산하, 생활문화 등을 누가 그리겠어.”(홍성찬 2011).

일러스트의 정의는 제3자에게 무엇인가 의미를 전달하거나 내용을 암시하기 위해 그린 그림을 뜻한다. ‘지계꾼에서 대통령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림을 그리는 것이 목적

이었다.’고 말하는 홍성찬은 일찌기 일러스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권혁수는 홍성찬을 두고 “삽화정신을 가지고 있는 작가”(권혁수 2000, 99)라고 말한다. 많은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시사 간행물, 광고, 팬시 등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광범위한 활동을 한 것과 달리, 홍성찬은 삽화가가 천대 받던 시절부터 그림책작가의 위상이 높아진 오늘날까지 일관되게 출판일러스트레이터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였고 그 결과 홍성찬은 한국그림책작가 1세대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오늘날 출판일러스트와 그림책이 독립된 장르로 정착을 하고 전문 그림책작가가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1980년대 이전까지 열악했던 출판환경과 삽화가에 대한 박한 인식과 대우를 견디면서 출판일러스트레이터로서 한길을 걸어온 홍성찬과 같은 작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홍성찬을 한국출판일러스트 1세대, 한국그림책작가 1세대라고 부른다.

나. 장인정신

홍성찬의 삶은 언뜻 보기에 평범하다. 그런데 그 평범함 속에 타협하지 않은 곳곳함이 배어 있다. 홍성찬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루 평균 9시간씩, 57년 동안 수련하듯 그림을 그렸다. 누구를 기다리거나 남는 시간에도 그림을 그리고 노트가 없으면 담배껍질을 벗겨서라도 그림을 그렸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책임감을 갖고 작업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고 믿으면서 그림을 그렸다.

장인이란 ‘한 가지 기술에 통달할 만큼 오랫동안 전념하고 작은 부분까지 심혈을 기울이고자 노력하는 정신’(다음사전)을 뜻한다. 유홍준은 “장인정신은 결국 ‘노력’이라는 결론으로 도출된다”(유홍준 외 2010, 44)고 하였다. 삽화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홍성찬은 평생 변함없는 태도로 자료를 수집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한국 고유의 이미지와 정서를 진짜처럼 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홍성찬은 독학으로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독창적 작품세계를 구축하였다.

홍성찬이 지닌 장인정신은 후배 일러스트레이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권혁수는 홍성찬을 두고 “작가 태도와 조형기술에서 진정한 자기 인식과 건강한 작업방식을 견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선배이고, 어떤 성취감에 기대기보다 끊임없이 자신의 열정과 노력을 확산하고 약속하는 그의 태도야말로 현역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배워야할 태도”(권혁수 2000, 99)라고 말한다. 이호백도 “아이디어만 가지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그림을 시작하는 선생님의 자세를 젊은 작가들이 배워야한다”(이호백, 2000)고 말한다.

IV. 결론

홍성찬은 삽화가라는 직업이 주목 받지 못하던 신문, 잡지 시절부터 전집 시절을 거쳐 그림책작가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57년 동안 출판일러스트에 전념해온 작가다. 홍성찬이 출판매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1955년, 월간지에 삽화를 그리면서부터인데 삽화가가 천대받던 시절이라 그는 가난을 면치 못했지만 월간지 <희망>, <야담> 등에 20년 넘게 삽화를 그렸다. 1970년대에 홍성찬은 신문, 잡지, 소설책에 삽화를 그리면서 활동을 이어갔다. 1980년대는 출판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출판량이 팽창했는데, 전집 출판을 많아지면서 어린이책 일러스트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었다. 그로 인해 홍성찬은 주로 아동문학전집에 그림을 그렸다. 1990대에 접어들면 그림책 출판을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단행본 그림책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는데, 전업 그림책작가가 등장하고 이들이 순수창작자로 조명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림책작가로 거듭난 홍성찬은 이후 2012년, 마지막 작품 『토끼와 재판』을 출간할 때까지 단행본 그림책을 꾸준히 출간하면서 한국그림책작가 1세대로서 자리매김을 한다.

홍성찬이 구축한 독보적인 작품세계, 즉 홍성찬 그림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철저한 고증(考證)을 통한 정확하고 사실적인 묘사이다. 홍성찬이 고증(考證)과 사실성을 강조한 것은 잘못된 정보 하나가 책 내용을 왜곡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잘못된 사고를 심어줄 수 있다는 책임감에 기인한다. 두 번째는 고증(考證)을 바탕으로 한 작가의 해석과 상상력이다. 홍성찬의 그림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은 홍성찬이 고증(考證)에 근거를 두되 끊임없이 연구하고 상상을 해서 대상의 겉모습은 물론 그 속에 담긴 느낌이나 정서, 분위기, 주변 정황까지도 진짜처럼 묘사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한국 고유의 이미지와 정서의 생생한 재현이다. 홍성찬은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자신이 살았던 시절의 예스러운 느낌과 정서를 생생하게 재현한다. 홍성찬의 그림은 고증(考證)을 통한 사실적인 묘사가 뛰어나고 옛날 느낌을 살려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사료(史料), 또는 교육용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홍성찬을 한국그림책작가 1세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그의 작가정신에 있다. 홍성찬은 삽화가가 천대받던 시절부터 그림책작가의 위상이 높아진 오늘날까지 일관되게 출판일러스트레이터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였다. 오늘날 출판일러스트와 그림책이 독립된 장르로 정착을 하고 전업 그림책작가가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1980년대 이전까지 열악했던 출판환경과 삽화가에 대한 박한 인식과 대우를 견디면서 출판일러스트레이터로서 한길을 걸어온 홍성찬이 있었기 때문이다. 평생 변함없는 태도로 자료를 수집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작은 부분까지 심혈을 기울이고자 노력해온 홍성찬의 작업 태도는 후배 일러스트레이터들에게 귀감이 된다.

최근 30년 동안 한국그림책출판이 급성장하면서 그림책의 독자층이 어린이는 물론 성인에

이르기까지 두터워지고 그림책 독자수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도서관의 그림책 수서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그림책역사에서 그림책작가 1세대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홍성찬을 조명함으로써 사서의 그림책작가에 대한 이해와 수서활동, 자료장악력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앞으로 다양한 그림책작가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그림책 수서를 위한 기초 연구를 제공하고 사서의 그림책에 대한 장악력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학술지 논문]

- 조은숙. 2006. 한국의 그림책 발전. 『어린이 문학교육 연구』, 7(2): 113-151.
조은숙. 2016. 1990년대 이전 한국 그림책의 시대 사회적 조건 고찰-일러스트레이터 김광배를 중심으로. 『어린이 문학교육 연구』, 17(1): 1-24.
문무경. 2014. 홍성찬 일러스트레이션의 특징과 의의-책그림 일러스트레이션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5(6): 107-120.

[대중잡지]

- 김영진. '삽화쟁이' 거듭나다. 2003. 『미술세계』. 11월.
권혁수. 디자인이 만난 사람. 1996. 『월간디자인』. 6월.
권혁수. 일러스트레이터 홍성찬. 2000. 『디자인』. 6월.
고선아. 남이 해놓은 것을 따라다니면 나라는 건 없어. 2006. 『창비어린이』. 6월.

[단행본]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재)출판도시문화재단 어린이책예술센터. 2007. 『시각이미지로 살펴본 우리나라 어린이책의 역사』. 경기: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14. 『홍성찬 아카이브 원화전』. 서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곽영권. 1994. 『그림이야기 사람이야기』. 서울: 신구.
김세희, 현은자. 2005. 『그림책의 이해』. 경기: 사계절.
김지은 외. 2013. 『그림책, 한국의 작가들』. 경기: 시공주니어.
유홍준 외. 2010. 『우리시대의 장인정신을 말하다』. 광주: 북노마드.

[그림책](출판 연도 순)

- 김영희 글, 홍성찬 그림. 1991. 『정배와 아가』. 서울: 한국프로벨주식회사.
이형구 글, 홍성찬 그림. 1995. 『단군 신화』. 서울: 보림.

- 강영환 글, 홍성찬 그림. 1996. 『집짓기』. 서울: 보림.
 이석호 글, 홍성찬 그림. 1996. 『난중일기』. 서울: 예림당.
 조대인 글, 홍성찬 그림. 1997. 『땅속나라 도둑괴물』. 서울: 보림.
 이광웅 글, 홍성찬 그림. 1998. 『허준과 동의보감』. 서울: 예림당.
 중국조선족설화, 홍성찬 그림. 1999. 『재미네골』. 서울: 재미마주.
 이태준 글, 홍성찬 그림. 2000. 『돌다리』. 서울: 다림.
 이효석 글, 홍성찬 그림. 2001. 『메밀꽃 필 무렵』. 서울: 소담출판사.
 김정란 글, 홍성찬 그림. 2001. 『아리 공주와 꼬꼬 왕자』. 서울: 논장.
 유소영, 박혜숙 글, 홍성찬 그림. 2001. 『귀신 이야기 옛들은 소금 장수』. 서울: 논장.
 이광웅 글, 홍성찬 그림. 2001. 『대조영과 발해』. 서울: 예림당.
 중국조선족설화, 홍성찬 그림. 2003. 『재미네골(판소리로 듣는 옛이야기)』. 서울: 재미마주.
 김시습, 박철 글, 홍성찬 그림. 2004. 『선비 한생의 용궁답사기』. 서울: 재미마주.
 정종목 글, 홍성찬 그림. 2006. 『광개토대왕』, 서울: 어린이중앙.
 홍성찬 그림, 원동은 글. 2006. 『얼씨구절씨구 풍년이 왔네』. 서울: 재미마주.
 홍성찬 그림, 원동은 글. 2006. 『으랏차차 신나는 놀이마당』. 서울: 재미마주.
 홍성찬 그림, 원동은 글. 2006. 『오줌싸개가 정승판서가 되었다네』. 서울: 재미마주.
 홍성찬 그림, 원동은 글. 2006. 『괴나리봇짐 지고 세상구경 떠나보세』. 서울: 재미마주.
 홍성찬 그림, 원동은 글. 2007. 『매일매일이 명절날만 같아라』. 서울: 재미마주.
 진은진 글, 홍성찬 그림. 2007. 『백두산 사슴과 인삼』. 서울: 썩크하우스.
 백석 글, 홍성찬 그림. 2007. 『여우난골족』. 서울: 창비.
 조현설 글, 홍성찬 그림. 2009. 『고구려 건국신화』. 서울: 한겨레출판.
 홍성찬 글, 그림. 2009. 『아빠는 어디에』. 서울: 재미마주.
 윤재인 글, 홍성찬 그림. 2010. 『할아버지의 시계』. 서울: 느림보.
 조재훈 글, 홍성찬 그림. 2012. 『지팡이 하나로』. 서울: 재미마주.
 홍성찬 글, 그림. 2012. 『토끼의 재판』. 서울: 보림.

[인터뷰]

- 홍성찬. 2011. 3. 13, 일산, [인터뷰].
 홍성찬. 2011. 7. 4, 파주, [인터뷰].
 류재수. 2011. 7. 4, 파주, [인터뷰].
 박은덕. 2019. 2. 19, [전화인터뷰].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Journal]

- Joe Eunsook. 2006. "A Study on the social conditions of korean picture books before 1990s-Illustrator Kim Kwangbae." *Study on Children's Literature Education*, 17(1): 1-24.
- Joe Eunsook. 2006. "The Development of Korean Picture Books." *Study on Children's Literature Education*, 7(2): 113-151.
- Moon Mookyung. 2014.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Hong Seongchan illustration -Focusing on Book Picture Illustration." *Basic Formative Research*, 15(6): 107-120.

[Magazine]

- Kim Yeongjin. "Born again as an illustrator" 2003. *Art World*. 11.
- Ko Seona. "There's no me if I follow what others have done" 2006. *Changbi Child*. 6.
- Kwon Hyeoksu. "A person whose design met" 1996. *Design*. 6.
- Kwon Hyeoksu. "Illustrator Hong Seongchan" 2000. *Design*. 6.

[Book]

- Kim Ji Eun et al. 2013. *Picture Books, korean writers*. Gyeonggi: Sigong Junior.
- Kim Sehee, Hyun Eunja. 2005. *Understanding of Picture Books*. Gyeonggi: Sagejul.
- Kwak Youngkwon. 1994. *The Story of the Picture, The Story of the Mane*. Seoul: Singu.
- National Children's Youth Library, Children's Book and Art Center of the Publishing City Culture Foundation. 2007. *The History of Korean Children's Books through Visual Image*. Gyeonggi: Asia Publishing Culture Information Center.
- National Children's Youth Library. 2014. *Hong Seongchan archives of pictures*. Seoul: National Children's Youth Library.
- Yoo Hongjun. 2010. *Craftsmanship of This age*. Paju: Booknomad.

[picture book](according to the year of publication)

- Baek seok writing, Hong Seongchan drawing. 2007. *Fox village*. Seoul: Changbi.
- Chinese folk tale, Hong Seongchan drawing. 1999. *Jeminegol*. Seoul: Jaimimage.
- Cho Jaehun writing, Hong Seongchan drawing. 2012. *With one cane*. Seoul: Jaimimage.
- Hong Seongchan drawing, Won DongEun writing . 2006. *A fun amusement park*. Seoul:

Jaimimage.

Hong Seongchan drawing, Won DongEun writing . 2006. *A good harvest is here*. Seoul: Jaimimage.

Hong Seongchan drawing, Won DongEun writing. 2006. *Every day is like a holiday day*. Seoul: Jaimimage.

Hong Seongchan writing, drawing. 2009. *Where is your dad?* Seoul: Jaimimage.

Hong Seongchan writing, drawing. 2012. *The trial of the rabbit Seoul*. Seoul: Borim.

Joe Daeinwriting, Hong Seongchan drawing. 1997. *A thief under the land*. Seoul: Borim.

Jung JongMok writing, Hong Seongchan drawing. 2006. *The King of Gwanggaeto*. Seoul: Jungang.

Kang YoungHwan writing, Hong Seongchan drawing. 1996. *House Building*. Seoul: Borim.

Kim Jungran writing, Hong Seongchan drawing. 2001. *Princess A-ri and Prince Koko*. Seoul: Nonjang.

Kim Younghee writing, Hong Seongchan drawing. 1991. *Jungbae and a Baby*. Seoul: Froebel.

Lee Hyunggoo writing, Hong Seongchan drawing . 1995. *Dangun Myth*. Seoul: Borim.

Lee Kwang Woong writing, Hong Seongchan drawing. 1998. *Hue Jun and Dongui Bogam*. Seoul: Yerimdang.

Lee KwangWoong writing, Hong Seongchan drawing. 2001. *Daejoyeong and Balhae*. Seoul: Yerimdang.

Lee Seokho writing, Hong Seongchan drawing. 1996. *Wartime Diary*. Seoul: Yerimdang.

Lee Tae-joon writing, Hong Seongchan drawing. 2000. *Stone Bridge*. Seoul: Darim.

Yoo Soyoun, Park Hyesook writing, Hong Seongchan drawing. 2001. *A salt-man who overheard a ghost story*. Seoul: Nonjang.

Yoon JaeIn writing, Hong Seongchan drawing. 2010. *My grandfather's watch*. Seoul: Neurimbo.

[Interview]

Hong Seongchan. 2011. 3. 13, Ilsan, [Interview].

Hong Seongchan. 2011. 7. 4, Paju, [Interview].

Ryu Jae-Soo. 2011. 7. 4, Paju [Interview].

Park Eunduk. 2019. 2. 19, [Telephone Interview].